"교원 · 학부모 · 학생 언어 습관 개선 필요"

도교육청, 인성교육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
내년 언어문화 개선 위한 프로그램 확대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실시한 인성교육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 교원·학부모, 학생 모두 언어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8~9월 유레카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는 초·중·고 학생 1,372명, 학부모 512명, 교원 169명이 참여했다.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5점 척도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구성원들은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교육(4.11), 학교스포츠 클럽활동(3.94), 환경교육과 생태감수성 교육(3.92) 등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예술교육(4.14), 학교스포츠 클럽활동(4.11), 학교폭력 예방교육(4.03) 순으로 답했다.

특히 2024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인성교육 주제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언어문화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비속어, 유행어 등의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인성교육 계획 수립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2024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성교육 주제를 선정하겠다"면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과 또래활동 강화 등 다양한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 '최우수기관'

중기 기술 · 경영혁신대전서 대통령표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18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회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에 공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중소기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을 운영중이다. 산학협력의 핵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공학컨설팅센터를 산하에 두고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권역 내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중점사업 호남권역 주관기관 선정, 연구마을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운영기관 2회 연속 선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 호남권역 운영기관 3회 연속 선정,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사업 호남·제주권역 운영기관 선정,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호남·제주권역 운영기관 5회 연속 선정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7~18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또한, 교내 링크 3.0 사업단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3.0) 기술혁신 선도형 선정,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 선정, 실험실연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등 대학 내 산학협력지원기관의 산학협력 체제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580여 개의 산학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940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510여 건의 기술이전을 했으며, 연구기반 사업 수행과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연계교육,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지원 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국경수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대학 내에 집적화하고,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역량을 가진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미래 수송기기 우수인재 양성 본격

전북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술개발 대회 통해 미래 동량 발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제1회 K-UAM(도심 항공교통) eVTOL(전기 추진 수직이착륙기) 기술개발 경연대회 및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미래 수송기기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전북대와 캠틱종합기술원, 전북대 링크사업단, 전북대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 및 자율자능이모빌리티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한화시스템과 한국국토정보공사, SK텔레콤의 후원을 받아 총 상금 3,700만원 규모로 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첫 대회에서 전북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생들로 구성된 둥실둥실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기계설계공학부 학부생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참가한 20개 팀 중 9개 팀이 본선에 올라 기체심사와 사람 모형의 가상 승객(200g 내외)을 탑승한 기체를 약 500미터 떨어진 목적지까지 운행한 뒤, 비행 안정성, 정확성 등을 평가한 실 비행 평가 등을 거쳐 우수팀을 선정했다.

이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북대 둥실둥실 팀은 10명의 학생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매일 기체 연구에 골몰해 작품을 완성,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RIS사업에서 미래 수송기기 특성화 분야로 선정돼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이 세계 수준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덕진 전북대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과)는 "이번 대회와 컨퍼런스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기관과 대학, 연구소 및 여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첫 걸음을 뗀 만큼 내년부터는 관련 기업 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이 대회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선도적 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제1회 K-UAM(도심 항공교통) eVTOL(전기 추진 수직이착륙기) 기술개발 경연대회 및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미래 수송기기 분야 우수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학습 상호 협력

도교육청,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에듀테크 활용 교육역량 강화 △교육행정업무 솔루션의 고도화 △학습 및 교육행정업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학습 격차 해소, 창의융합 교육 등이 있다.

또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원 역량 강화, 학생 학습 환경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업무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습 및 교육행정업무 데이터 분석·활용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 제공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디지털기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9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서 징계받고 발령되도 갑질 무주 A유치원 원장 즉각 파면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 A유치원에서 갑질로 신고된 원장이 새로운 발령지인 무주 A유치원에서도 갑질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갑질 원장 만행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A유치원 원장의 반복된 갑질!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무주 A유치원 ㅇ원장은 이미 전임지였던 전주에서 심각한 갑질로 10여 명의 교사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남겨 징계를 받고 무주로 발령 났다. 이후 ㅇ원장은 무주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관사 생활을 기반으로 교사들을 24시간 가스라이팅 하는 등 진화한 갑질을 이어갔다는 것. 이는 피해교사들의 눈물 젖은 일기장, 여러 진술과 증언, 현장 녹음파일 등으로 생생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정말 분노하는 대상은 전북교육청"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ㅇ원장에게 왜 신규교사만 3명을 발령시켰냐는 것이다. 설령 무주지역 전보 신청자가 없었더라도 신규교사보다는 경력 있는 복직교사를 배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 후에도 ㅇ원장은 도교육청 각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와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ㅇ원장의 갑질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A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ㅇ원장의 갑질 비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개전의 자세 없이 교육계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파면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 A유치원장은 "신규 교사들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으며, 현재 신규 중에 특수선생님은 병가중"이라고 했다.

또한 "본인은 트라우마가 생겨 절대 사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선생들에게 하는 것도 원감 선생님 통해 일을 하지, 직접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특히 "호흡곤란 증세의 경우 본인이 의사도 아니고, 결증상이 그래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걱정돼 급체인 지 물어본 것"이라면서 "시골은 응급차보다 개인차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 나중에 복무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인 만큼 무단이탈이나 사고발생 시 큰일난다. 그래서 수송기록(복무)을 남기고 서둘러 자동차로 병원에 가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주민 · 소상공인 지역기관 상생 · 화합

전주대, 오늘부터 이틀간 골목상권 Hip 드림 축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1일 이틀간 평생교육원에서 제3회 전주 골목상권 Hip 드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와의 협업으로 지역 주민, 소상공인, 지역기관들의 상생을 목적으로 마련, 평생교육 홍보,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20일 오후 6시부터 통기타 팀, 태권도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히든싱어 '싸이', EDM 파티 'DJ 장군' 등 Hip 콘서트가 열리며, 21일 오후 1시부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및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행사 참여 상권 이용에 따른 경품 응모권 및 할인권을 증정하는 등 5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성택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축제가 숨겨진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공동체가 상생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양하고 유익한 강좌로 지역의 평생 배움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스마트관광, 새로운 기회와 도전'

우석대, 추계공동학술대회 기획세션 개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9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의 기획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션은 스마트관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관광: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획세션에는 학회 관계자와 국내 연구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순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기업협업센터장과 강성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우석대학교 LINC 3.0 지·산·학 성공사례: 완주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를, 정남호 경희대 스마트관광연구소장이 '디지털 퍼스트 시대 스마트관광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이상엽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석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과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 양기근 한국지방행정학회장, 김진 대한부동산학회장, 김상근 전주대 교수, 설정환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은 "데이터 기반의 관광 트렌드 분석과 이슈 공유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우리 사업단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세계한인무역협회 임원 초청 Glo-Up 특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8일 자유관 308호 외 2곳(한식스타홀, EM생활관 204호)에서 Glo-Up(글로벌 마인드 셋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9일 전주대에 따르면 Glo-Up 강연은 LINC 3.0 사업단에서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전공 맞춤형 글로벌 마인드 셋업 과정으로, 지역 대학을 세계적 명문으로 만들어 가는 발판이 되는 산학연계 혁신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식품 생명 융합기술 ICC,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 중심으로 기획됐다. 이마태오(쿠알라룸푸르 Kmt그룹), 최귀선(부다페스트 ANW Consulting Kft.), 김준(빈 한식 레스토랑 AKAKIKO) World·OKTA 협회원들은 각각 외식산업조리학과, 한식조리학과, 회계세무학과에서 강연을 진행, 해당 학과 학생들의 글로벌 도전 의식을 갖도록 해줬다.

/장은성 기자